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7월 30일 (제90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나쁜 습관을 잘라내라

화투놀음을 해서 집안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다. 가정도 깨지고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정신이 든 그는 다시는 화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도끼로 손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팔목에다 화투를 끼고 놀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습관은 들이기도 어렵지만,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나쁜 습관을 잘라내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革命)'이란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즉 죽을 각오를 해야 나쁜 습관을 잘라낼 수 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은 '천관녀'라는 기생에 빠져 있었다. 당연히 삼국통일이라는 대업 앞에 천관녀는 걸림돌이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김유신 장군은 마음이 괴로워 술을 많이 마셨다. 그 날도 술에 취해 말에 올랐는데 깨어보니 말이 천관녀의 집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애마의 목을 쳤다. 그리고 입산수도하여 과업을 이룬다. 늘 천관녀에게 향하던 김유신의 습관대로 말이 움직인 것이다. 그 습관을 잘라내는 일은 혁명인지라 김유신은 애마를 죽인 것이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30).

잡초가 더 왕성하듯 나쁜 버릇은 이상하게 더 빨리 자란다. 그러니 작더라도 나쁜 습관은 혁명적인 생각과 각오로 잘라내라. 거짓말 하는 습관, 늦잠 자는 습관 등을 잘라내라. 그 버릇이, 그 습관이 너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이 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니까.

처음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라

7월 24일부터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는 한 마디로 영적 훈련장이었다. 예전과 같은 야외활동은 완전 배제되고 오직 기도과 찬양,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으로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달랐다. 본시 교육부 담당목사가 진행하던 오리엔테이션에 총회장 목사님이 등단하셨다. 이번 훈련의 강도가 어떠할지 가늠하게 했다.

"예전에 내가 특수부대에 차출되었을 때 교관은 '이 훈련에 도저히 못 따라올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지금 나가라'고 했다. 나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이번 영적훈련이 힘에 겹다고 여겨지거든 지금 나가라.

여러분은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의

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어봐라. 이 말씀은 믿음생활을 하든, 세상일을 하든, 처음 마음을, 처음 각오를, 처음 목적인 바를 끝까지 지키면 성공한다는 말씀이다. 처음 믿음을 견고히 잡고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처음 각오하고 목적인 바를 마지막까지 지키면 어떤 방면에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정치를 시작할 때의 각오, 결혼할 당시의 마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을 잊고, 처음 가졌던 목적을 상실하기에 실패한다. 그러나 한 시대에 위대한 획을 그은 자들은 처음 가진 목적과 생각을 끝까지 고수해

키느냐가 관건이다. 다니엘은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 성공한 자다. 그러나 사울이나 삼손은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자들이다.

나는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한 자들 중에 제2의 이초석, 제3의 이초석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화(化)'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릴 칠 때를 꼭 기억하라."

목사님은 설교 후에 한참 동안 통성기도를 시켰다. 그리고 다시 저녁예배에 등단하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셨다. 고양이도 호랑이가 훈련을 시키면 호랑이처럼 포효하고, 호랑이처럼 지배할 수



제21회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2017.7.24~26, 예수중심기도원)

뜻을 아는가? 오리엔테이션이란 신입사원이나 신입생에게 단체나 학교나 기업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개회예배에 나온 것은 이 연합수련회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다. 여기 먹고 놀러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단련시켜 정신개조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변화, 성장된 자들로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러기에 2박 3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서 마침내 이룬 자들이다. 날 때부터 위대한 자가 있더라.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범을 사냥하려면 토끼나 사슴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그 목적을 향하여 미사일 정신, 마니아 정신, 올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란 것은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산에 올라왔는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웠는가? 성공과 실패는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처음 마음과 각오, 목적의식을 끝까지 지

었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는 법,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용장 이초석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 교단이 미래요, 우리나라의 꿈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고 아름다우리라. 이번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성령세례



경배와 찬양



은혜로운 말씀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2:19~25)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최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나 아십니까? 기도만이 가장 큰 무기요, 최고의 방책이요, 기도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자산임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요.

성경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전이요, 위대한 믿음의 역군이 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어 못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곧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모세에게 강한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애굽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출14:15),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도(출15:25)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지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소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뛰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사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는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일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와 같다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고,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출산치 못하게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삼상1:5). 그런데 한나의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사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삼상1:10~1:19).

여러분, 기도는 현존하는 문제의 열쇠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자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왕상17:1). 온 천하가 가뭄으로 불탔습니다. 3년 반이 흘렀을 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기도에 풍전등화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셨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으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를 사자 굴에서 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매추라기를 잡으려고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어 매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길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요즘 교계의 거목들이 펍펍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랫사람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

서 어둠이 몰려온 것입니다. 심방 다니느라, 교회 관리하느라 바빠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기도에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고 하였고,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고 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 32년 동안 기도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눅 22:44) 저도 모 든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을 때도, 해외집회에서 난항에 부딪혔을 때도, 제 자식의 문제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교단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눅22:39). 주님은 새벽기도로 하루를 여셨고(막1:35),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였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막9:29).

조지 윌러 목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조지 윌러 목사는 수 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가 그의 고아원을 방문해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놀라 조지 윌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조

지 윌러 목사는 “저쪽에 제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놀라 “고아원에 무슨 은행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저기 저 문을 보십시오.” 하며 기도굴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의 품족은 모든 것의 품족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마18:18).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권력 있는 자나 재력 있는 자, 배운 자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문제를 도와주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4:2).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역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가능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크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렐33:3).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영적 호흡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내 영이 죽고, 내 삶이 죽고, 내 기업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나라가 죽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국가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지체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의 일생을 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착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말씀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부를 추구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부를 시기함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누가 부자를 멸시하던가. 누가 부자를 시기하던가. 부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부자를 탓하던가. 다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부가 자기를 삼킨다는 뜻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신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영혼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부자가 되어 오히려 백부장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신다. 결국 행복이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따라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정욕과 식욕, 의복과 편안한 잠자리, 게으름 등이 왕 노릇한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자기 영을 거스르고 영뿐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여 아예 원수로 변한다. 우리들은 현명하고 영리하며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교리로 구축하여 그 안에 갇혀 고행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부딪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적나라하고 치열한 실상과 현실을 알게 된 자들이다. 그 전에는 영이 있는 것도 몰랐고 죄와 심판은 더더욱 몰랐으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태양과 우주를 지

으신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얻게 되는 엄청난 지식은 세상 석학이나 권세자가 감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 있다면 황당한 일이다. 우리는 육신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롭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부담스러울지라도 내 영혼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몰아가며 희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니, 곧 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지킬 것이요, 또 성령으로 행하여 영광을 돌려야 한다. 주 예수는 속히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예수가 오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주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 첫 언약의 주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새 언약의 주는 구름타고 오신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찬양하고 속히 이루어질 일을 고대한다. 마음이 타락하여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혼을 지켜야 한다. 예수의 말씀은 실상이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라! 영생으로든, 영멸로든...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To Be Succeede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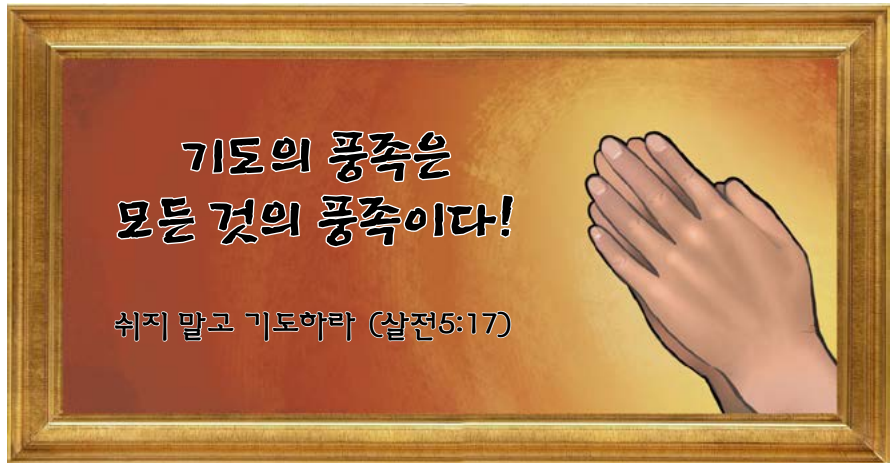
생각의 틀을 넓혀라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물고기 중에 ‘코이’ 라는 잉어가 있다. 코이는 자신이 마주치는 환경에 따라 대어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물고기로 남을 수도 있다. 어항에 넣으면 5~8센티, 수족관에 넣어두면 15~25센티, 강에 방류하면 90~120센티까지 자란다. 사람도 코이와 같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생각의 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더 큰 생각을 갖고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즉 큰 생각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꿈을 꾸도록, 큰 그릇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스스로의 틀을 깨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우신다. 우물이 넘치면 우물 안 개구리는 죽는 줄 알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접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몰랐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 스스로를 죄인 중의 죄수라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딤후 1:15~16). 우리 생각의 틀을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생각의 틀 바깥에 있는 것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사람을 불러서 큰 그릇에 넣고 키우기를 원하신다. 병속에 든 벼룩처럼 자신의 한계를 미리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고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기회는 붙잡는 자의 몫이다

에스키모 인들에게는 전통적 늑대 사냥법이 있다. 얼음 바닥에 가축의 피를 적신 날카로운 칼을 꽂아 놓으면 후각이 발달한 늑대가 다가와 피가 얼어붙은 칼을 핥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의 피를 다 핥으면, 결국 날카로운 칼날을 핥으며 혀가 베이고 피를 흘리다 서서히 죽어 가는데 그 때 늑대를 잡는다. 신앙생활에서도 위험한 것이 영적 무감각이다. 수십 년 교회 다녔으니깐, 직분이 있으니깐, 기도도, 봉사도 다 해봤으니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지표로 구원과 상의 잣대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종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한 것이다(빌2:12).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삶을 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버림받은 사울왕, 나실인으로 택함 받아 한때는 적군 블레셋을 벌벌 떨게 했지만 불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삼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첫사랑을 잃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나 역시 예외일 수 없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딤후6:12). 은혜의 계절이다. 잃었던 첫사랑, 회개의 눈물, 성령의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내 영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벗겨벗지 말아야 한다(계3:18). 잠시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과 노후 준비 하는 것보다 열심을 내야 할 일은, 영생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에 마음 문 활짝 열고 화답하자. 기회는 붙잡는 자의 몫이다.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순교, 나를 버리는 길

로마의 한 원형경기장, 경기장 바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경기장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유와 조롱을 보낸다. 두려움을 애써 감춘 눈망울로 한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찬송을 시작하고, 한 명 한 명 이어 모두들 감사의 찬송을 이어간다. 이 때, 철창의 문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덮친다. 갓난아이에서 어른 할 것 없이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다. AD 64년 즈음, 로마 황제 네로는 도시에 닥친 큰 화재 앞에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짐승들의 밥으로 주거나 십자가에 매달고 불에 태워 인간 헛불로 사용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2번의 탈출 기회가 있었으나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헤롯 아그립바 왕에게 칼로 목 베임을 당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린 채 찢겨져 순교한 빌립,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이 몸에 관통해 순교한 도마,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마늘 창에 찔

려 순교한 마태, 군중들이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 돌로 때려 뇌 손상으로 순교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 순교한 셀롯인 시몬,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한 야고보의 형제 다대오, 가롯 유다 대신 12사도에 편입되어 전도하다가 돌 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으로 순교한 맛디아, 인도에서 총독에게 잡혀 산 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은 나다니엘(바들로매),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우상의 종교의식 중 몸이 찢기며 순교한 마가, 로마에서 목이 잘리며 참수형으로 순교한 사도 바울까지. 그 누가 이들 앞에서 우리들의 작디작은 고난, 눈곱만한 상처, 티끌 같은 시험을 말할 수 있으랴? 지금의 상황, 환경에 감사하며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임을 명심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2).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우리가 안되는 게 어디 있나

인터넷 공간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이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그 곳에 3천 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 영화배우 팬으로 그의 영화를 보고, 그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소원이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갑자기 모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예수중심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지난 20여 년 동안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안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이었다.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안되는 게 어디 있나?’ 라는 믿음을 갖고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다. 목표는 1,000명 수용. 하루 8시간 대관. 서울 안에 있는 각종 공연장과 콘서트홀에 전화를 돌렸다. 거절, 예약 종료, 시설 부족, 또 거절. 그렇게 30여 군데에 전화를 돌렸지만 계속 거절되었다. ‘어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 대학 콘서트홀에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반

만 O.K. 이유는 콘서트홀을 대관하려는 주최가 개인인지라, 대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모임의 연혁과 행사 의 의의, 그리고 대관 장소인 학교의 성격과 맞아 떨어져야만 승인이 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답변이었다. 매우 회의적인 답변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내가 안되는 게 어디 있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즉시 6시간 동안 작업하여 하나의 기획서를 완성하였다. 구구절절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개인이 주최하는 것이지만 한국 영화사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다. 그 학교, 그 장소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로 만들었다. 내 기획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가 되게 만들었다.

행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멘!’ 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미팅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렇게 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831명이 수용 가능한 콘서트홀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과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그 행사의 총감독이자 연출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딸인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는 나의 믿음. ‘우리가, 내가 안되는 게 어디 있어!’ 라는 내 믿음은 내 삶의 좌우명이자, 주님을 향한 천성길의 지표로 내 발길을 도울 것이라 생각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행사 준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회전식 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발만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무작위로 돌린 후에 차례로 자기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무서운 내기입니다. 목숨을 건 복불복 게임이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반드시 한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전도서 12장에 자신의 귀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뜻대로

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득도하려면 산전수전 다 겪으라

You should be trained in all hardships if you want to be awoken spiritually.
想要得道,就要饱经风霜。

☞ 태산과 대해가 되라

Become a big mountain and ocean.
要成为泰山和大海。

약식동원 영지버섯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고대 이집트에선 버섯이 파라오만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버섯이 전사들에게 싸움 힘을 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또한 버섯은 영조와 네로 황제, 진시황제, 나폴레옹이 즐긴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는 버섯을 따오는 사람에게 버섯 무게만큼의 황금을 선물해 ‘버섯 황제’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제는 영지버섯을 ‘불로초’로 여겼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죠. 또한 조선시대 영조는 송이의 ‘광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버섯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음식 재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산속의 쇠고기’, ‘채소 스테이크’라고 부릅니다. ‘버섯 장수는 장수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

지버섯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영지는 성질이 텅고 맛은 담담하면서 약간 씁니다. 주로 비경(脾經)인 소화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경(腎經)인 자양강장과 마음과 몸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래에 관상동맥 심장병이나 가슴앓이, 고혈압,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만성기관지염이나 위·십이지장 궤양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약효를 지닌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약차로 복용할 경우 영지 1.5~3.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는 영지버섯 10g, 산약 15g, 백출 12g, 진피 6g을 물로 1~2시간 달여서 차로 마십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습

이 가쁘며,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경이 예민한 경우는 영지버섯, 산수유, 백자인 15g, 오미자 10g, 목향 5g을 물로 1~2시간 달여서 차로 마십니다. 영지버섯은 주로 태양인과 소양인 체질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복용 후 피로가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우는 영지버섯이 잘 맞는 경우이고, 설사를 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는 영지버섯이 잘 맞지 않는 경우이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항상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복용 후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어서 내 몸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별하여 건강한 여를 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복주기원하시는 하나님!

브루스 윌킨슨이 지은 ‘아베스의 기도’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간 존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다니던 중에 창고 같은 건물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각 선반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 하얀 상자들이 붉은 리본으로 묶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존은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쫓히고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리본을 풀어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존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다면 주시려고 했던 많은 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았으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사람처럼 하나님의 호응을 가지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힌 상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8). 7월 31일~8월 17일,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열리는 하계산상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